

일제시대 전익수리조합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정 승 진**

Keywords

수리(irrigation), 보(bo, 淤), 만경강(Mangyong River), 치수사업(water project), 딜레마(dilemma)

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formation of early irrigation associations in the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Chonik(全益) Irrigation Association. From the early 1910s, there used to be a traditional-style irrigation system called bo(淤) in Ch'unp'o myon, Iksan County, Jeonbuk province. Chonik Association was little innovative in irrigation techniques, but it brought about certain important changes in managing the institution. First of all, it was the Japanese rather than Koreans who initiated a modern system of association. Chonik Association carried out large river proj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too. The Mangyong River improvement project started in its middle reach in 1925. The initial project was further extended by five years to develop the lower reach and a tributary(Iksan Stream) of the river as well. This water project combined with the irrigation project enhanced

* 이 글은 제12차 세계농촌사회학대회(2008.7.11)에서 발표된 필자의 논문, “One Japanese Village in Colonial Korea, ‘Taejang-ch'on’ at Iksan County: A Case of Dilemma in Rural Development” 가운데 일부(제4절 전익수리조합의 설립과 대장촌)를 수정·증보한 것이다. 이 글의 사례 지역을 망라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전북 裡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창간호 (2008.10)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동 대회를 성원해준 Raymond Jussaume(WSU) 대회 조직위원장, KREI 허장 박사, 경남대 김종덕 교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3)

**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HK연구교수 seungjinch@hotmail.com.

much a synergic effect. However, given the well-established and highly effective irrigation association, the regional rural society far surpassed other ordinary Korean villages in agricultural environments. The dilemma of the colonial development was that as their influences in the region deepened, so the gap between them and neighboring villages widened.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조합의 재정운영과 조합비 |
| 2. 조합의 개황 및 전사(前史) | 5. 하천개수공사와 경지정리사업 |
| 3. 조합의 창설과 이후 전개과정 | 6. 역사적 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1. 머리말

이 글은 전북의 익산, 전주 양 군에 걸쳐있던 전익(全益)수리조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재래 수리시설의 근대적 활용이라는, 한국근대 농업수리발달사에서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문제에 접근해보려는 것이다. 기존의 수리조합연구는 주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이라는 농업정책사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를 요약하면¹, ① 산미증식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토지개량사업이 대부분 수리조합에 의해 진행되었고, ② 수리조합지구야말로 식민 지지주체가 가장 전형적으로 전개되었던 곳이었으며, ③ 수리조합사업 나아가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미곡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정승진 2000). 이같은 연구들은 일제시대 식민정책사의 연구 계통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², 식민정책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는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실태분석으로서의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1차 자료의 발굴을 동반한 구체적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근대적 수리시설, 근대적 수리제도로서 수리조합을 새롭게 조명하였다(이영훈 외 1992). 그러나 일부의 연구를 예

¹ 주요한 것은 다음 논문 참조. 崔泰鎭 1966; 西條晃 1971; 田剛秀 1984; 李愛淑 1985; 河合和男 1986.

² 이어서 이를 실증하는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박명규 1989; 徐承甲 1991; 이경란 1991.

외로 한다면 전근대 재래 수리시설과의 연속성은 문제의식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식민지 농정의 근대성만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분석상의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그런데, 최근 만경강 주변의 수리조합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 계통의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바 있다(松本武祝 2003; 정승진 2004; 홍성찬 외 2006).

조선후기 이래 수도작에서 수리(水利)의 중요성은 한층 제고되었다. 특히 이양법 이후 제언(堤堰) 및 보(洑)가 지역조건에 따라 다수 설치되었다. 19세기 농민들간에 보가 성행했음은 곡창지대인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일제시대 근대적 수리기관으로 설립된 수리조합에서는 재래 수리시설과의 단절성만이 강조된 채, 수리조합의 설립과 함께 기존 시설의 파괴, 보조시설로의 전락 등만이 엿보인다. 재래 수리시설을 기반으로 한 중소규모 보형(洑型) 수리조합은 전근대 농민간의 자치적 수리실태라는 과도기적 특질과 한계를 노정한 채, 일제시대 수리조합의 양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전익수조는 재래 보를 주요 용수원으로 한 보형 수리조합이다. 한국근대 농업수리발달사에서는 옥구서부수리조합(1908년 설립)과 거의 함께 효시를 이루는 초기 조합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이경란 1991; 우대형 2005). 신설된 전익수리조합에서는 옥구서부수조와 함께 재래 수리시설을 이용했던, 초기 조합제도의 과도기적 성격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최소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옥구서부수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08년은 ‘한국근대 농업수리발달사 100주년’인 셈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과거에 대한 해석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또 광역 수계(水系)의 관점에서 전익수조가 주변 지역 내지 인근 수리조합과 어떠한 연관관계(inter-regional relation)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거대한 문제에 대해 필자의 능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최근 마즈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2003)의 만경강 일대 수리조합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경강 수계를 둘러싼 누진적이며 연쇄적인 용수개발은 이 일대에서 수리질서의 대대적인 개편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수리조합사업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특히 근대적 농업변용의 모습을 전근대를 시야에 넣고 통시적으로 복원해 볼 수는 없을까. 이 경우 전익수조의 사례는 재래 수리시설을 일제시대에도 주요 용수원으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양태가 완만하다는 사례의 특질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변화와 연속성, 근대성과 재래적 성격 간의 과도기적 속성에 대한 하나의 부가적 논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조합의 개황 및 전사(前史)

전익(全益)수리조합의 전익은 전주(全州)의 ‘전’과 익산(益山)의 ‘익’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명 표기방식과 유사하다. 조합명은 조합의 물리구역이 구 전주군(현 完州郡)으로부터 익산군에 걸쳐 있던 저간의 사정을 대변하고 있다. 만경강 수계의 인근 수리조합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임익수리조합(1909년)의 경우(임익남부수조(1909년)도 마찬가지) 임피(臨陂)와 익산, 임옥수리조합(1911년)의 경우 임피와 옥구(沃溝), 익옥수리조합(1920년)의 경우 익산과 옥구 등이 그러했다. 옥구서부수리조합(1908년), 고부(古阜)수리조합(1916년), 동진(東津)수리조합(1925년) 등은 행정구역이나 하천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였다. 이렇듯 수리조합은 그 수익면적과 중첩되는 행정구역명이나 하천명 등을 조합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표 1> 참조).

표 1. 1927년 현재 전북의 수리조합 개황

단위: 町步

조합명	사업지	설치년월	물리면적	수원별	조합사무소 소재지	조합장
沃溝西部	옥구군 舊邑面	1908.12.	490	貯水池型	옥구군 米面 米龍里	金相熙
臨 益	옥구군 臨陂面 익산군 黃登面	1909. 2.	3,343	저수지형	익산군 黃登面 黃登里	藤井寛太郎
全 益	익산군 春浦面 전주군 參禮面	1910.11.	1,445	湫型	익산군 春浦面 大場村	永原邦彦
古 阜	고창군 興德面 정읍군 古阜面	1916. 5.	4,323	저수지형	정읍군 古阜面 古阜里	川野長久
益 沃	익산군 益山面 옥구군 大野面	1920. 2.	9,420	저수지형 揚水機型	익산군 益山面 裡里	藤井寛太郎
龍 進	전주군 龍進面	1922. 8.	170	저수지형	전주군 龍進面 澗中里	青田竹治
赤 城	순창군 赤城面	1925. 6.	150	양수기형	순창군 赤城面 古院里	森 半次
東 津	金堤郡 井邑郡 扶安郡 김제면 외 19개면	1925. 8	14,560	저수지형	김제군 김제면 堯村里	玄角伸藏
계			3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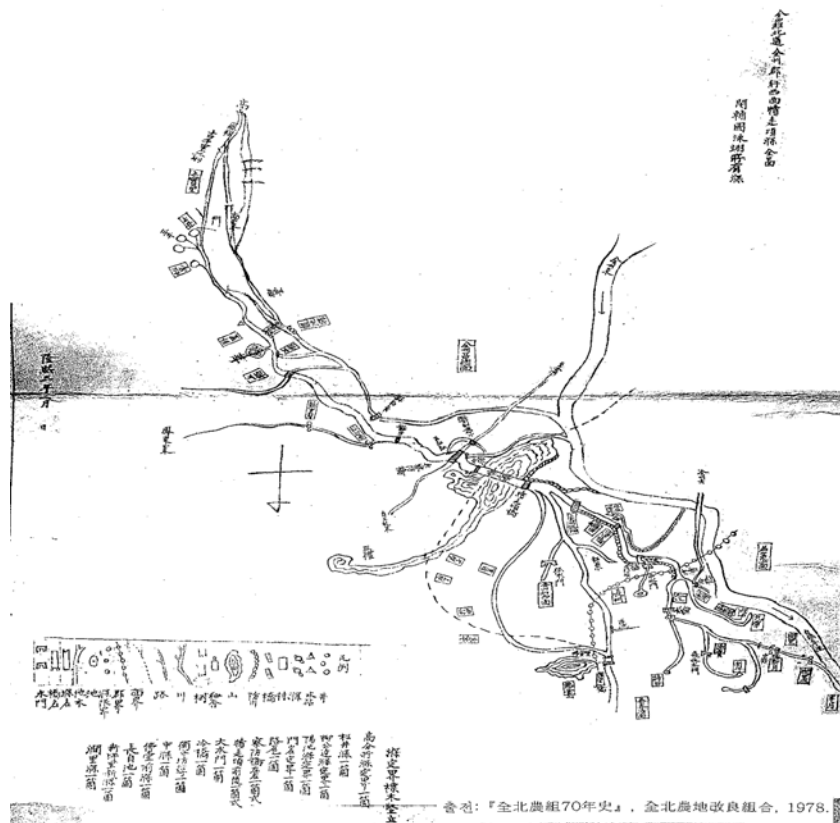
자료: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년판,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4-15, 24-25쪽.

주: 益沃水組는 臨益南部水組(1909년)와 臨沃水組(1911년)가 1920년에 합병된 조합³.

³ 臨益南部水組는 1909년 임피군의 남부 일대와 익산군의 서남부를 사업지로 삼아 창립, 물리면적 2,540정보. 臨沃水組는 1911년 임피군 서남부와 옥구군 동부 일대를 사업지로 하여 창립, 물리면적 2,900정보. 全北農地改良組合, 1978. 「全北農組70年史」, 147, 233쪽. 이하 수리조합은 수조로 약칭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익수조는 1927년 현재 전북의 유일한 보형 수리조합이었다. 익산군 춘포면 장연리(長淵里, 현 대장촌) 일대에는 19세기 이래 전주군 삼례에 취입구를 둔 독주항보(犢走項洑)의 수로가 펼쳐져 있었다⁴. 정기적으로 수세(水稅)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아 보의 운영은 상설적이었던 듯하다. 전익수조는 죽동궁(竹洞宮) 외척 민영익(閔泳翊) 소유의 재래 보(洑)를 매입해 이를 개수(改修)하는 형태로 조합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독주항의 취입 수문은 완주군 삼례면 비비정(飛飛亭) 아래에 소재했다. 다음의 <그림 1>은 1909년 매매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구한말 재래 복합보(複合洑)의 위용을 볼 수 있다⁵.

그림 1. 구한말 독주항보 개황도



4 독주항보는 全州郡 紆西面(현 완주군 삼례)에서 만경강 하류를 따라 益山郡 春浦面에 걸쳐 있었다. 全益水利組合. 1909~1941.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裡里: 全益水利組合.

5 표제명은 「全羅北道全州郡紆西面犢走項洑全圖(閔輔國泳翊所有洑)」이다. 全北農地改良組合. 1978. 『全北農組70年史』, 裡里: 全北農地改良組合 所收.

독주항보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십 고(庫)의 보의 수로(大水道)로 연결된 ‘복합보’였다⁶. 보는 인수(引水)시설인 보, 대수도(大水道), 방축(防築) 등이 하나의 세트(set)로 구성되어 있다⁷. 여기서는 이같은 보가 보의 수로 즉, 대수도에 의해 남북으로 상호 연결되어 거대한 복합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하단에 소개된 보만 보더라도, 고분소보(高分所滌), 송정보(松井滌), 류공달보(柳公達滌), 양지보(陽池滌), 개보(改滌) 등 다수인데, 이외에도 자연부락 이름으로 위치만 소개되어 있는 적지 않은 보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수많은 방천(防川), 수문, 교량, 연못[池], 우물[井] 등이 부속한다⁸. 독주항보는 구한말까지도 비교적 양호한 기능을 발휘했던 듯하다. 보주(湫主)인 민영익(閔泳翊)이라는 정치적 거물이 주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1909년 매매 당시 독주항보의 매주(賣主)로 등장하고, 매수인은 전익수조의 총대인(總代人)인 구로다(黒田二平), 백남신(白南信), 고지마(兒島大吉), 박기순(朴基順), 이마무라(今村一次郎), 박영근(朴永根) 총 6인이었다. 당시 2종의 계약서상에는 각각 1909년 11월자 5,500圓, 도합 11,000圓으로 보가대금(滌價代金)이 산정되었다⁹.

구한말 당시 농민간 행해지던 보관개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충북의 재래 수리시설의 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18개 군내 70개 제언(堤堰)의 평균관개면적은 157.8두락이다. 이를 정보(町步)로 환산하면 1개소의 제언당 평균면적은 약 10.5정보이다. 보의 경우 566개소로 제언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그 평균관개면적도 12.3정보로 제언보다도 오히려 더 넓었다¹⁰. 그러나 정기적으로 수세를 수취하던 재래 수리시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상설적인 운영체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구한말 당시 농민간에 보관개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독주항보가 충북의 일반 보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독주항보는 삼례에서부터 춘포면에 이르는 약 1,300정보(2만 3천 斗落)의 몽리구역에 대한 관개 용수시설로 이용되었다. 구한말 당시 수세(水稅)는 1두락에 대해 1두(斗) 수준이었다. 조합설립위원회는 재래 보를 기반으로 1909년 조합인가 신청을 했고, 탁지부지령 제199호로 1910년 3월 31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¹¹. 초대 조합장은 조합설

6 조선 후기 이래 複合湫에 대해서는 최원규(1992) 참조.

7 보는 한자표기 상으로 湫와 滌의 두 가지 용례가 있다.

8 全益水利組合. 1909. 『土地賣買契約書』, 全益水利組合. 1909~1941.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裡里: 全益水利組合

9 이 2종의 보(湫) 매매계약서 자체가 독주항보가 남북으로 2개의 幹線水路로 이루어진 복합보임을 말해주고 있다.

10 『韓國忠清北道一般』. 1909. 67-71면.

립위원장이자 호소가와 농장의 주인이었던 구로다(黒田二平, 1910-1915)였다.¹² 호소가와가는 조합구역 내 최대 지주였으며, 조합사무소는 호소가와 농장사무소를 겸용하고 있었다(정승진 2004).

3. 조합의 창설과 이후 전개과정

조합자료를 통해 수리사업 이전 이 일대의 수리·농업 실태를 보면, “본 洲의 관개구역은 매년 水旱의 우려가 없는 양호한 구획이지만 홍수 시 하류로부터 범람하는 경우 수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수로가 불충분한 부분은 때때로 旱害를 입는 일이 있어,今回 이와 같은 공사로써 수로의 연장 및 제방을 축조해 수리를 완성하고 다시는 水旱의 우려가 없는 양호한 구획을 이루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이같이 춘포면 남단의 조합예정구역은 전술한 독주항보를 이용한 수리의 편익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 일대가 만경강의 연안지대로서 한수해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합방 당시 이 지역의 수확량은 전국평균(1석 약)보다 높은 단보당 벼[粳] 1.5~1.6석을 기록하고 있었다¹⁴.

전익수조 설립위원회는 창설 당시 임익수리조합과의 분수(分水)계약을 둘러싼 사전 교섭이 조합 설립에 있어 중요한 과제였다¹⁵. 전익수조는 1909년 2월 설립된 임익수조보다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9년 11월 즉, 조합인가 1년 전 전익수조 설립위원장인 구로다(黒田二平)는 임익수리조합과 독주항의 수로로부터 영구히 무상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 분수(分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익

¹¹ 全益水利組合. 1909. 『全益水利組合設立認可申請書』, 全益水利組合. 1909~1941.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裡里: 全益水利組合: 全益水利組合. 1910. 『全益水利組合規約認可件』,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이하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자료의 인용방식은 이와 같음).

¹² 이후 다사카(田坂佐三郎 1915~1917, 춘포면 용연리 거주 농장주)-노지리(野尻安 1917~1919, 호소가와가 家扶 겸 농장주임)-나가하라(永原邦彦 1919~1936 농장주임)-요시다케(吉武定夫 1937~1941, 정체불명) 등 호소가와 농장과 깊은 관련을 가진 이들이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1909~1941),

¹³ 全益水利組合. 1910. 『全益水利組合計劃概要』,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¹⁴ 全益水利組合. 1915. 『報告』,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¹⁵ 全益水利組合. 1910. 『覺書』,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수조는 후지 간타로(藤井寛太郎)가 설립한 당시 조선 최대의 수리조합이었다. 임익수조 측에서는 당시 폐제언이던 황등제(黃登堤, 일명 腰橋堤, 익산 소재)에 관개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전익수조로서는 설립 이전 임익수조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조합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양 조합 간에는 1918년 분수 기간을 둘러싸고 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¹⁶, 당시 만경강으로부터 용수원이 부족했던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조합창설의 총사업비는 2만원(水洑買收費 1만 1천원, 수로수선개축비 5천원, 제방공사비 1천원, 기사측량설계비 1천 5백원, 창업비 1천 5백원)으로 전주농공은행(全州農工銀行)으로부터 차입했다(1만 5천원)¹⁷. 공사기간은 9개월이었다¹⁸. 재래 독주항보의 매입과 개수(改修), 그리고 그 구역 내의 관개수로(溝渠 포함)를 수선하는 것이 사업의 요체였다. 특히 조합비에 대해서는 “舊慣을 襲用하여” 기존의 저렴한 수세(水稅=조합비)를 그대로 부과했던 것이 인상적(답 1두락에 대해 韓枰 1두 = 일본승 5승)이었다¹⁹. 이는 초기 보형(淤型) 수리조합의 성격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후 1913년 조합비의 금납화(답 1두락당 현금 25錢), 2회 분납화(전반기 12월 20일, 후반기 2월 20일)가 시행되면서 조합 운용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전국통계로서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이 최초로 작성된 1927년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리조합들의 공사비와 조합비를 비교해 본 것이다. 전술한 <표 1>도 동시에 고려하면 초기 수리조합의 역사에서 전익수조가 점하는 위치와 특질을 알 수 있다. 식민지시대 수리조합의 재정구조에 대해 장시원(1992: 190, 202)은 조합비부담의 과중성이 초기 공사비의 고액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표 2>에서는 옥구서부수조와 함께 전익수조의 경우 역으로 해당 수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¹⁶ 全益水利組合. 1918. 「全益水利組合評議員會會議錄」, 「臨益水利組合分水期間改訂ノ件」,

¹⁷ 창설과정의 차입금은 답 1두락에 대해 인(粃) 1두 씩 조합비를 징수해 상환하는 계획이었다. 全益水利組合. 1910. 「全益水利組合計劃概要」,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¹⁸ 전익수조의 공간기간은 1910년 11월부터 1911년 8월이었다. 全益水利組合. 1915. 「報告」,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¹⁹ 全益水利組合. 1910. 「組合費賦課決議書」,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표 2. 1927년 전북 수리조합의 공사비 및 조합비

단위: 町步, 円

조합명	면적	공 사 비		조 합 비		水源 形態別
		총 액	段步當	총 액	段步當	
沃溝西部	490	13,680	2.79	3,381	0.69	저수지
臨 益	3,343	235,814	7.05	83,575	2.50	저수지
全 益	1,445	18,500	1.28	5,780	0.40	보
古 阜	4,323	714,955	16.53	118,575	2.74	저수지
益 沃	9,420	3,673,100	38.99	666,792	7.07	저수지
龍 進	170	201,400	118.47	13,832	8.13	저수지
赤 城	150	59,416	39.61	9,675	6.45	양수기
東 津	14,560	7,248,217	49.78	659,940	4.54	저수지
계	33,901	12,165,100	35.88	1,561,550	4.60	

자료: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년판.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4~15쪽.

전체적으로 보아 1920년대 이전에 설립된 초기 조합의 공사비 수준이 저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익수조는 재래 보를 사용함으로써 재래 제언을 주요 용수원으로 삼고 있던 옥구서부수조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보형 수리조합의 공사, 재정 측면에서의 이점이었는데, 무엇보다 향후 주류적 유형으로 자리잡는 저수지형, 양수기형 조합보다 공사비를 비롯한 재정구조를 양호하게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리조합사업에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경우 초기 공사비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향후 농민들이 받는 조합비는 결코 낮은 수준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익수조의 초기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설립위원회 6명(구로다, 이마무라, 다사카 등 모두 일본인), 조합원 총 75명(일본인 22명)²⁰, 총대인(總代人) 17명(조선인 8명; 백남신, 박기순 포함), 평의원(評議員) 10명(조선인 5명; 호소가와, 이마무라, 백남신, 박기순 포함) 등으로 일본인 지주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¹. 이들은 주로 조합사

²⁰ 조합원 가운데에는 全羅北道長官 李斗璜이 포함되어 이채롭다. 『全益水利組合員名簿』.

²¹ 호소가와농장 및 조합설립위원의 토지소유규모는 다음과 같다(일부 불명). 細川農場(대장촌, 7,334.8斗落), 高崎親和, 黒田二平(대장촌, 48.3두락), 下山時彦(全州郡), 兒島大吉(砂川里), 今村一次郎(대장촌, 894.3두락), 田坂佐三郎(新湖里, 20.두락). 이후 추가된 조선인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白南信(全州郡, 1,323.5두락), 朴基順(全州郡, 298.5두락), 金允甫(雙亭里), 都德好(於田里, 2.0두락), 洪士聖(新湖里, 29.0두락). 全益水利組合. 1910. 『組合員名簿』.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전익수리조합의 주요한 물리구역인 익산군 춘포면의 토지대장 분석에 당시 지주제의 동향이 자세히 분석

무소가 소재하던 대장촌(大場村)의 일본인 농장주들이었다. 조합사무소는 호소가와가의 농장사무소를 겸용하다가, 1915년 4월 춘포면 회화리(回化里, 1917년 행정구역 개편시 대장촌에 포함)에 별도의 건물로 이전하였다²². 이후 조합은 1941년 전북수리조합으로 합병될 때까지 대장촌에 사무소를 두고 호소가와농장과 깊은 관련을 유지했다.

전술한 임익수조와의 교섭에 이어서 전익수조는 1913년 임익남부수조와 분수(分水)를 둘러싼 교섭을 진행하였다. 임익남부는 전익의 서부 측, 만경강변의 보다 하류에 위치해 있었다. 전익수조 평의회회의에서는 조합구역 내 임익남부수조의 시설에 관한 수로 이용 및 유지복구에 대해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²³. 양 조합 간의 교차구역 내 수로 유지·보수는 임익남부수조의 전액 책임으로 귀결되었다. 단, 제방피해에 대해서는 1/3 부담이었다. 여기서 전술한 임익수조와 임익남부수조에 대해 전익수조는 용수 구조상 우위에 위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주항보는 19세기 이래 이미 정상 가동 중이었고, 다만 상기 조합들보다 1년 늦게 설립되었을 뿐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리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관개수리에 있어서는 ‘보상가보(淤上加淤)’ 관행이 준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상류우위’라는 전통적 수리질서가 관철되었고, 전익수조는 높은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松本武祝 2003). 따라서 전술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익수조의 공사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었다(추가개량공사비 등).

1917년 수리조합비는 기존의 두락(斗落) 당 25전에서 단보당 40전으로 변동되었지만²⁴, 두락을 정반평제(町反坪制)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²⁵. 1918년에는 답의 경우 단보당 43전으로 조합비인상이 시도되었지만, 이전의 40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²⁶. 전술한대로 조합의 초기 사업비(주로 공사비)는 전주농공은행으로부터

되어 있다. 정승진(2004) 참조. 『朝鮮産業指針』(1915)의 移民편에 호소가와농장, 拓植편에 이마무라농장 소개 참조.

²² 全北農地改良組合. 1978. 『全北農組70年史』, 223-224쪽. ; 회화리는 대장촌리 내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다.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282쪽.

²³ 全益水利組合. 1913. 『全益水利組合評議員會議事錄』, 『契約書』.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²⁴ 全益水利組合. 1917. 『全益水利組合評議員會議事錄』, 『組合費賦課率變更に關する件』.

²⁵ 畓 1斗落=160坪 强 추정. 이는 조합의 물리구역이 약 1,300町步(2만 3천斗落)였던 사실에 근거한다.

²⁶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15쪽 ; 1940년판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을 보더라도 전익수조의 反當組合費는 51錢에 불과했다. 같은 자료. 19쪽.

차입한 기채(年利) 9푼 8리, 10개년간 균등분할상환)에 의해 충당되었다. 1917년 9푼 5리였던 조합채 이자율을 8푼으로 인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조선수리조합령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관철되지 않은 듯하다²⁷. 그러나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기채액은 1927년 단계에서 전무했던 것으로 보아 1927년 이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고 추정된다²⁸. 이같은 사실은 초기 보형 수리조합의 이점이 충분히 활용되었던 창설과정의 양호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조합의 재정운영과 조합비

일제시대 수리조합의 재정구조에 대한 장시원(1992: 201-202)의 연구에 따르면, “조합재정은 세입구성 면에서는 組合債와 組合費 및 國庫補助金이, 세출구성 면에서는 經常費와 組合債償還費 및 事業費(주로 工事費)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의 재정구조는 이 6종의 크기와 상호관계에 의해 움직이는데, 특히 “조합운영과 구역 내의 지주(및 농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組合費”였다. “이것의 징수실적은 증산실적과 곡가수준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같은 재정변동의 기본 메카니즘을 고려하면서 전익수조 구역내 수확량 및 조합비부담률을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표 3>에서 ‘공사전수량’은 10개년 평균치인데, 재해 상황을 예외로 한다면 실제 수치와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공사후수량’은 당해 실제 수확량이다. 후자에서 전자를 뺀 것이 이른바 수리조합사업에 따른 ‘증수량’인데, 이것에 당해 ‘곡가’를 곱한 것이 ‘증수액’이다. 특히 <표 3>에서는 1930년대 전반 농업공황에 따른 미가폭락이 잘 반영되어 있다. ‘증수액’을 당시 소작관행에 따라 50%의 소작료 수준으로 추정한 것이 ‘지주부담력’이다. 이를 통해 당해 지주나 농민은 조합비를 납부하게 된다. ‘실질부담률’은 당해 ‘조합비’를 ‘지주부담력’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27 全益水利組合. 1917. 「組合債利率變低減に關する件」.

28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14, 73쪽.

29 조합에서는 1개년 수입을 平年作으로 단보당 벼[粳] 1.5石 내지 1.6石으로 추정하였다. 全益水利組合. 1909~1941.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표 3. 區域內 段步當 組合費 實質負擔率의 推移

단위: 石, 圓, %

年度	工事前 收量(a)	工事後 收量(b)	增收量 (c=b-a)	穀價 (d)	增收額 (e=c×d)	地主負擔力 (f=e×0.5)	組合費 (g)	實質負擔率 (h=g/f×100)
1927	1.56	2.88	1.32	13.00	17.16	8.58	0.40	4.66
1928	1.56	2.86	1.30	12.50	16.25	8.13	0.40	4.92
1929	1.56	3.81	2.25	12.00	27.00	13.50	0.40	2.96
1930	1.56	3.24	1.68	5.25	8.82	4.41	0.40	9.07
1931	1.56	2.87	1.31	8.82	11.55	5.78	0.40	6.92
1932	1.60	4.25	2.65	7.92	20.99	10.49	0.40	3.81
1933	1.60	4.01	2.41	9.10	21.93	10.97	0.45	4.10
1934	1.60	4.23	2.63	11.56	30.40	15.20	0.50	3.29
1935	1.61	4.43	2.82	12.41	35.00	17.50	0.50	2.86
1936	1.61	4.05	2.44	12.24	29.87	14.93	0.50	3.35
1937	1.60	4.00	2.40	11.05	26.52	13.26	0.50	3.77
1938	1.60	4.07	2.47	13.26	32.75	16.38	0.71	4.33
1939	1.60	2.39	0.79	17.51	13.83	6.92	0.67	9.68
1940	1.60	2.79	1.19	17.51	20.84	10.42	1.41	13.53

자료: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各年版 「水利組合實績ニ依ル收支概算表」.

주: 곡가는 1石의 가격.

전익수조의 조합비 ‘실질부담률’은 일부 연도를 예외로 한다면 5% 미만의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 ‘지주부담력’이 높았기 때문이며, 수리사업에 따른 ‘증수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1930년대 전반 미가폭락에 따른 ‘증수액’의 일시적인 하락사태였다. <표 3>에서 보듯이 1930~1933년간 미가는 1석 당 10원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가 1934년 이후에야 1920년대 수준(12원대)으로 회복해 ‘증수액’은 비로소 이전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공사후수량’이 단보당 4석을 상회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호상황이었다.

조합비 실질부담률이 낮았던 주요한 요인은 설립 초기부터 조합비의 절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비는 단보당 50전 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는 전술한 조합 창설과정에서 ‘공사비’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표 2> 참조). 전익수조는 전국적인 통계가 잡히는 1927년 이전에 이미 조합채의 상환을 완료했을 정도로 양호한 재정기조를 확보하고 있었다.³⁰ 결국 이같은 건전한 재정구조가 한층 낮은 조합비 수준을 유도할 수 있었다. 조합비는 설립 이래 1930년대까지 단보당 1원 미만 이었다가 1941년 전복수리조합에 합병된 뒤에야 1원 41전으로 인상되었다.

³⁰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1927年版 「水利組合債總括表」, 73쪽.

전익수조의 조합비 실질부담률 추이를 여타 조합과 비교해보면 전익수조의 재정구조가 어느 정도로 건전했는가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기존에 알려진 경기, 충청, 전라도의 5개 수리조합의 조합비 실질부담률을 전익수조와 비교한 것이다. 단, 설립 시점에 따라 물가수준이 달랐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¹.

표 4. 조합비 실질부담률의 비교

단위: %

年 度 (설립연도)	全益水組 (1910)	馬九坪水組 (1909)	舒川水組 (1923)	富平水組 (1923)	靈光水組 (1924)	多侍水組 (1930)
1927	4.7	21.8	52.9	119	114.4	
1928	4.9	22.8	∞	126	103.3	
1929	3.0	20.4	39.6	107	135.5	
1930	9.1	15.6	76.8	167	185.0	
1931	6.9	9.4	54.2	122	114.5	
1932	3.8	7.8	49.3	124	89.4	31.4
1933	4.1	7.6	53.8	102	92.2	68.0
1934	3.3	4.4	30.9	122	99.9	46.9
1935	2.9	3.8	29.1	97	97.1	48.4
1936	3.4	5.4	94.3	124	78.7	82.9
1937	3.8	4.6	30.4	94	57.4	49.1
1938	4.3		33.1	56	62.1	43.2
1939	9.7		108.5	48	48.2	26.7
1940	13.5		35.3	∞	35.0	26.9
1941			24.4	57	40.6	26.3

자료: 마구평수조는 이영훈(1992: 168), 서천수조는 정승진(1997: 150), 부평수조는 장시원(1992: 250), 영광수조는 정승진(2000: 186), 다시수조는 정승진(2003: 69) 참조.

주: “∞” 표시는 무한대로서 계측 불가.

비교의 대상으로 제시된 마구평수조는 충남의 ‘보+저수지형’(몽리면적 312정보), 서천수조는 충남의 대규모 ‘저수지형’(동 3,500정보), 부평수조는 경기의 대규모 ‘양수기형’(동 3,600정보), 영광수조는 전남의 대규모 ‘저수지형’(동 2,600정보), 다시수조는 전남의 중규모 ‘저수지형’(동 612정보) 수리조합이다³². 이 가운데 1920년대 전반에

³¹ 1910년대에 설립된 수리조합과 1920·30년대에 설립된 조합 간에는 물가수준의 차이가 있다. “物價水準은 1910년을 100으로 할 때, 1911년 112, 1913년 119, 1915년 109, 1917년 173, 1918년 235, 1919년 296, 1921년 230, 1923년 228, 1925년 259, 1926년 234, 1927년 219, 1929년 207, 1931년 145, 1933년 160, 1935년 180이었다. 1910~1935년 사이에 있어서는 1918~1926년 사이가 相對的 高物價時期라고 할 수 있다.”(장시원 1992: 203)

설립된 서천, 부평, 영광수조는 설립 당시 관개면적이 각각 충남, 경기, 전남에서 가장 큰 수리조합이었다. 1920년대와의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5% 전후한 전익수조의 조합비 실질부담률이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³³ 특히, 1920년대 설립된 서천수조와 다시수조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조합으로 알려져 있는데,³⁴ 전익수조는 당시 2.5배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실질부담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익수조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마구평수조보다도 낮은 부담률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27~1930년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익수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래 수리시설을 주요 용수원으로 이용한 보형 수리조합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적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조선인이 배제된 채 일본인 중심의 근대적 조합제도로 조직되었고 이후 관(官)의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의 사실과 함께 조합비 징수에서도 구래의 관행이 존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합사업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려는, 구역내 최대 지주인 호소가와농장의 경영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정승진·마쓰모토 다케노리 2005). 그러나 호소가와농장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조합구역 내의 소작 농민, 또 조합사무소 소재지인 대장촌과 인근 촌락 간의 지역적 격차가 확대되는 ‘개발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³⁵. 대장촌의 발전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선진적인 일본식 ‘모범촌락’을 모방하고 있었다.³⁶ 대장촌에는 우편소, 파출소, 공립심상소학교, 춘포공립보통학교, 대장역, 상설점포 등 각종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32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27년판, 12~14, 22쪽;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0년판. 16쪽. 마구평수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淤를 중심으로 저수지, 양수기 등이 결합된 ‘복합형’ 수리조합이었다(이영훈 1992: 146).

33 부평수조는 재무구조 상에서 당시 대표적인 ‘불량’ 수리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수조도 마찬가지였다. 장시원(1992), 정승진(2000) 참조.

34 서천수조에 대한 우대형(2005)의 평가 참조.

35 山下春圃. 1927.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益山發展史』. 139~143쪽.

36 『朝鮮産業指針』(1915) 移民편의 호소가와농장 소개 참조.

5. 하천개수공사와 경지정리사업

한국의 수리조합은 식민 초기부터 그 원형이 되었던 일본의 부현(府縣) 조합과는 달리 관개·배수뿐 아니라 방수·방조·경지정리·농사개량 등 다목적의 기능을 가진 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근대적 수리조합이 지역의 수리관행을 고려해 그 기능이 분화된 각각의 단일 조합으로 설립·운영되었다³⁷. 전익수조의 경우 조합의 목적이 관개·배수에 그치지 않고 하천개수, 경지정리, 농사개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전익수조지구의 경우 총독부 직할하천공사가 최초로 개시되는 자연·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 인근의 만경강에서 하천개수공사가 19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공사는 1924년 대한발을 계기로 1925년부터 전주천 국부개수공사(全州川局部改修工事)를 시작해 1926년부터 만경강 중류 일대로 확대되었다. 초기의 개수계획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6개년간의 계속사업(繼續事業)으로 공사비 총액은 570만원이었다. 그런데, 1929년부터 만경강 하류부와 지천인 익산천(益山川) 개수공사를 위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결국 총공사비 964만원으로 확대되어 준공기간을 5개년 간 연장하였다.

다음의 <표 5>는 만경강개수사업의 공사비 내역을 살펴본 것이다. 예산액과 예산잔액을 합한 만경강개수공사의 총사업비는 9,259,668원인데, 이 가운데 1935년까지의 예산액이 7,838,810원이었다(85%). 예산액 780만 여원 가운데 본공사비가 53.4%, 토지매수비 17.3%, 부대공사비 14.6% 순을 점하고 있다. 토지매수(보상)비의 상대적 저위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천공사 반대운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리조합구역 내에서는 전액 국고보조에 의한 하천공사가 시행됨으로써 그 부분만큼 전익수조에서 하천개수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준공액으로 보는 한 “본공사(비)”의 진척률은 73%에 불과해 개수공사는 당초 계획인 193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³⁷ 일본에 대해서는 馬場昭, 1965. 48-49쪽 참조. 식민지시대 한일간 비교는 松本武祝, 1991. 93-95쪽 참조.

표 5. 1925~1935년 만경강개수공사비의 내역

단위: 원, %

費目	土地買收費	本工事費	器械費	附帶工事費	雜費	合計
豫算額 (구성비)	1,358,626 (17.3)	4,182,242 (53.4)	613,864 (7.8)	1,144,561 (14.6)	539,517 (6.9)	7,838,810 (100.0)
竣工額 (진척률)	1,271,299 (93.6)	3,051,009 (73.0)	542,970 (88.5)	1,061,888 (92.8)	474,985 (88.0)	6,402,033 (81.7)
豫算殘額	87,326	1,121,194	66,299	84,062	61,974	1,420,858

자료: 정승진(2004: 149) 원자료는 『萬頃江改修工事年報附表』, 朝鮮總督府內務局編,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1935年度), 2~3쪽.

주: ① 본공사비에는 굴착공사비, 축제공사비, 護岸水制工事費, 특수공사비 포함.

② 부대공사비에는 水門工事費, 橋梁工事費 등 포함.

③ 잡비에는 급료수당 및 여비, 營繕費, 測量其他調査費, 雜工事費, 其他諸費 등 포함.

④ 합계에는 (직원) 봉급 및 사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포함한 준공 총액은 7,062,444원임.

1935년까지 실제 시공된 “본공사”의 총건수는 178건으로서 계획 시공건수 190건의 94%에 달하고 있었다. 시공 건수의 추이를 보면, 특히 1930년 시점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1929년 기존의 하천 중류부 공사에 전술한 하류부 개수공사와 익산천 개수공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931년까지 본공사에서는 굴착, 축제, 호안 공사 등 하신정비사업(河身整備事業)이 공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만경강이 심한 사행(蛇行) 특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高在昱 1986). 여기서는 하신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하천을 일류화(一流化), 직류화(直流化)함으로써 하신(河身)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다³⁸. 1932년부터는 수문, 기타 공사를 통해 방·배수를 원활히 해 중류 이하에서의 범람을 방지하는 데 공사의 역점을 두었다.

만경강개수공사는 유역 가운데 홍수의 피해가 가장 큰 전주군 삼례면 비비정(飛飛亭) 이하 익산군내 대장촌(춘포면), 목천포(木川浦, 이리읍 부근)를 경유해 동자포(童子浦, 五山面 소재)에 이르는 연장 16km 구간, 동자포로부터 하류 동지산(東之山) 부근에 이르는 8km 구간, 익산천 신천부(新川敷)의 굴착 등 홍수방어를 위한 배수공사에 공사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³⁹. 특히, 1930년대 전반에 완공된 익산천개수공사에 의해 대장

³⁸ 만경강의 제방 건설 현황 및 직강화 공사에 대해서는 조성욱(2007) 참조. 만경강의 이 같은 사실은 榮山江改修工事에서도 확인된다. 鄭勝振(2003) 참조.

³⁹ 특히, 익산천은 춘포면 川東里 부근부터 春浦山의 동쪽을 貫流하여 大場村里 부근에서 본류와 합류하는데, 益山川局部改修工事에서는 춘포면 立石里(雙亭里에 편입) 부근 이하 仁壽里를 경유해 板門(龍淵里)에 이르는 사이에 新川敷를 정하고 防水堤를

촌을 포함한 춘포면 일대의 경지는 한해 및 수해 예방이 가능한 완전한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⁴⁰.

수리조합지구의 경우 하천배수 및 방수 공사는 인근의 익옥수리조합이나 동진수리조합의 사례에서처럼 수리조합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었지만,⁴¹ 여기서는 익산천 개수 공사가 총독부의 직할하천공사로 시행됨으로써 전액 국고 보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⁴² 따라서 전익수조의 추가개량공사비 즉, 방·배수 공사비는 한층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⁴³. 이것은 지역 농민들에게 당해 사업비만큼 조합비를 절감하는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치수사업의 완공은 수리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었다. 관개 개선에 수해 예방까지 가능해짐으로써 안정적인 고수확 기조가 가능해졌고, 조합비 부담은 낮아져 농가경제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동진강 유역을 관개구역으로 삼고 있던 동진수리조합이나 만경강 유역의 여타 수리조합들과 갖는 주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것이다⁴⁴.

1925년부터 시작된 만경강개수공사는 1940년 경 완공되었다(남궁봉, 1990: 68-69). 춘포면 일대에서는 치수사업이 종료되던 1930년대 말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추정된다.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수리, 치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한층 높아지고 있었다. 사업의 주체는 전익수조였다가 1941년 합병된 전북수리조합(全北水利組合)으로 이월되어 1945년경까지 주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그러나 만경강 주위의 여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조성욱 2007: 193).

축조해 만경강 본류와 합류시키도록 하였다. 「萬頃江改修工事」 1931년판.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

⁴⁰ 全益水利組合. 1931. 「河川流水引用ニ關スル件」.

⁴¹ 益沃水利組合. 1923. 「益沃水利組合之事業」. 裡里: 益沃水利組合; 全北農地改良組合. 1978. 「全北農組70年史」. 裡里: 全北農地改良組合; 東津水利組合. 1935. 「東津水利組合創立10周年記念誌」. 金堤: 東津水利組合; 古阜水利組合設立事務所. 1916. 「組合設立認可願關係」. 井邑: 古阜水利組合.

⁴² 공사 주체는 이리에 소개하는 萬頃江改修組合이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불명하다.

⁴³ 만경강은 총독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액 국가 보조). 1939년까지 전익수리조합에서는 “추가개량공사”가 시행된 바 없었다.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9·40년판.

⁴⁴ 東津水利組合. 1935. 「東津水利組合創立10周年記念誌」. 金堤: 東津水利組合.

⁴⁵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

표 6. 대장촌리 1940년 토지대장과 1945년 '신대장'의 비교

단위: 坪, %

구 간	1940년 토지대장		1945년 토지대장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3000~ 坪	45	273,759 (41.5)	17	71,921 (7.4)
2000~3000	40	95,796 (14.5)	21	50,072 (5.2)
1500~2000	36	62,350 (9.4)	24	40,644 (4.2)
1200~1500	23	30,962 (4.7)	384	472,391 (48.9)
900~1200	38	39,052 (5.9)	120	125,952 (13.0)
600~900	70	53,023 (8.0)	126	94,959 (9.8)
300~600	134	58,809 (8.9)	149	65,318 (6.8)
~300	508	46,075 (7.0)	506	44,300 (4.6)
계	894	659,823(100.0)	1,347	965,557(100.0)

자료: 정승진·松本武祝(2006). 원자료는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

주: 표본(sample)면적의 증가는 1945년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할 때 1940년 대장에 해당 필지의 缺失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지정리 이후 춘포면의 1필지당 경지 규모는 1,200평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극히 표준적인 경포(耕圃) 상태를 연출했다. 대장촌리의 경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 단계에서 2,000평 이상의 대규모 필지가 표본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경지정리 직후인 1945년 단계에서는 대규모 필지가 상당수 분할되어 1,200~1,500평대의 필지가 표본의 48.9%를 점하고 있다. 특히, 1,210평이라는 특정 규모의 답 필지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일대의 농경지가 극히 표준적인 지편(地片)으로 분할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다시 1945년 이후 605평이라는 2개의 표준 필지로 재분할되었다(정승진·松本武祝 2006: 46).

1945년 사업 완공 이후 대장촌리를 포함한 춘포면의 경지 경관은 현재의 '바둑판' 모양으로 새롭게 구획·정리되었다. 만경강 유역의 여타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늦은 시기에 경지정리가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역으로 이 일대가 전술한 독주항보를 배경으로 이미 양호한 경지조건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술한 수리조합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30년대 말에야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진행된 제사업은 춘포면의 도작환경을 한층 양호한 조건으로 바꾸어놓았다. 요컨대, 현대 춘포면 농촌의 원형은 경지정리사업이 완공되고 이후 필지 분할이 완료된 1945~1960년 사이에 형성되고 있었다.

6. 역사적 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전익수조는 1940년 전복수리조합과 합병 교섭이 시작되어 1941년 4월 총독부에 최종 인가되었다⁴⁶. 전복수조는 1908년 초기 수리조합의 설립 이래 두 차례의 합병과정을 경과했다. 전술한 옥수서부(1908), 임익(1909), 임익남부(1909), 전익(1910), 임옥(1911) 등 5개 수리조합이 만경강 중·하류 변을 중심으로 식민 초기에 창설되었고, 이 가운데 임익남부와 임옥이 1920년 익옥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다(이리에 조합사무소)⁴⁷. 1941년 익옥수조를 중심으로 옥구서부, 임익, 전익의 3개 조합이 합병되어 전복수리조합으로 개칭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수리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이후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등으로 개칭되어, 한국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체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松本武祝 2008).

전복수조는 만경강 일대의 초대형 수리조합으로 성장해 이후 ‘대규모 저수지형’이라는 현대한국 농업수리발달사의 주류적인 수리조합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재래보형의 전익수조도 시세의 변화에 따라 전복수조의 역사에 수렴되었다. 전복수조는 규모 면에서 전북 동진강 일대의 동진수리조합(1925)과 비견할 만하다⁴⁸.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초기 수리조합들은 대규모 조합으로 합병되어 식민지 농정의 중추기관으로 준공공기관화하였다. 오늘날에는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의 하부 집행기관으로서 ‘반관반민’의 길을 걷고 있다⁴⁹.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전익수조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두고 싶다.

한국근대 농업수리발달사의 시각에서 전익수조는 재래 수리시설을 근대적 수리조합에 이용한 농업수리의 초기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익수조는 식민 초기에 설립된 중규모 보형 수리조합의 유형에 속하며, 인근의 익옥, 동진 등 대규모 저수지형 조합과는 대조적 양상을 연출했다⁵⁰. 전익수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재래 ‘보형’이라는 연속성을

⁴⁶ 全益水利組合. 1941. 「水利組合合併認可書謄本」, 全益水利組合. 1909~1941. 같은 자료.

⁴⁷ 益沃水利組合. 1923. 「益沃水利組合之事業」, 裡里: 益沃水利組合. 익옥수조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 참조. 徐承甲, 1991; 이경란, 1991.

⁴⁸ 1941년 6월 고부(1916), 영원(1930) 2조합이 동진수조에 흡수·합병되어, 1942년 4월 총독부로부터 최종 인가되었다. 상기 3조합의 합병과정에 대해서는 東津農地改良組合. 1975. 「東津農地改良組合五十年史」, 金堤: 東津農地改良組合. 260쪽 참조.

⁴⁹ 현대에 들어서 설립된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 사례로서 Wade, Robert. 1982. 참조.

⁵⁰ 당시 동아일보의 ‘전조선수리조합실황조사기’ 중에 전익수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익수리조합은…… 처음부터 조합비가 극히 저렴하여 매

유지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비상설적 관행 형태를 탈각하고 여타 유형과 마찬가지로 상설 조합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조합의 창설과정에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동시성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비동시성이 혼재한다. 더구나 조합비가 구래의 관행을 존수함으로써 식민지적 근대성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조합 운영상의 복잡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한국근대농업수리발달사 ‘1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상념과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⁵¹. 한국농업수리발달사라는 장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보나 제언 등 재래 수리시설은 일제시기에 들어서 소멸과정에 놓여있었다. 여기에는 ‘제국적 약탈성’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지리적 특질과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의 주체가 식민지권력과 일부 일본인에게만 주어져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지역 농민의 시각에서 볼 때 한층 뚜렷하다.

직접생산자 농민의 시각에서 식민지 초기의 수리조합은 그 단체적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전술한 저수지형 수리조합의 경우 당초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형 수리조합은 구래의 보를 주요 용수원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구래의 ‘수리계’가 근대적 조합기관으로 전신하는 전환적인 국면을 경과했다. 그런데 제언이나 보 등 기존의 재래 수리시설은 농민간의 자치조직으로 존재했지만, 신설된 수리조합에서는 직접생산자인 농민이 수리질서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특히, 조합원자격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조합 운영상에 있어서 소작농의 소외는 명백한 것이었다. 수리조합 제도에서는 구조적으로 ‘계층적 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소작농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자작 농민은 소작료를 통해 조합비만을 전가받는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하고, 일부 조선인 지주층만이 일본인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사가 말해 주듯 수리조합은 농민간의 비공식적 자치조직에서 지주 중심의 반관반민(半官半民)적 농정기구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은 ‘총독부농정-재촌지주층’을 연결고리로 하는 새로운 수리질서가 출현하는 급격하면서도 전환적인 변동 국면이었다. 이제 수리조합은 식민지주체의 주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등장하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태적지주’의 생산 기반시설로 기능했던 것이다.

反當 40錢에 불과한 고로 조합원이 이 점에 있어서 불평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또 水量이 풍부하여 급수가 충분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안심하고 경작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명백히 조합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리조합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겠다.” 『동아일보』 1927.8.20.

51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행한 “한국농업·농촌100년사(2004)”의 성과가 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 농민의 소외는 한층 심화되었다. 품종, 비료, 경종법 등 농사개량에서뿐 아니라 수리문제라는 토지개량부문에서도 직접생산자 농민은 생산주체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상실했다. 가령 수리조합지구가 아니더라도 일본인 소작제 농장이 발달할수록 소작 농민의 역할은 한층 협소해지던 당시의 소작관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활발하게 농사지도가 이루어지는 수리조합지구의 경우 농업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생산과정에서 농민의 소외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당시 제언계, 보계 등 다수의 재래 수리계가 해체되었던 사실은 급변한 수리질서와 농민 현실을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다. 단, 전익수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조합비 수준 때문에 이같은 악순환은 일정 부분 저지되었지만, 호소가와가 등 일부 일본인이 주도하는 조합운영 과정에서 본질적 모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또 20세기라는 통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익수조의 조합사무소가 소재하던 대장촌의 개발은 식민지시대의 일시적인 개발 ‘붐’으로 국한되었다. 해방과 함께 일본인의 이주가 완료되면서 대장촌이라는 지역사회는 개발의 이니셔티브를 상실하고 여타 농촌과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걷었다. 이같은 사실은 역으로 식민지시대의 개발이 주변 지역과의 내포적 지역 연관이 취약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식민지시대에는 오히려 대장촌의 개발이 주변 지역과의 격차만 유발했을 뿐, 주변 농촌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컨대, 일본인 농장주 밀집지대에서 행해진 집중 개발은 사후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취약했음이 대장촌을 중심으로 한 익산의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었다.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에서 수리, 치수 등 장기 인프라 투자는 식민지기 지역사회 개발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돌이켜보면, 보호국으로 전락한 1905년 이래 호소가와가 등 일본인 지주의 내주(來住), 농장창업은 지역사회에 일대 개발 ‘붐’을 일으켰다. 일본인 농장주들의 농사개량 시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리, 치수문제의 해결이 지역개발의 관건이었다. 전익수조구역의 경우 수리사업은 이후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이라는 연쇄적인 인프라사업을 유발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던 보형 전익수조는 대단위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등과 결합되면서 질적으로 상이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기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은 단기에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조화와 부담을 초래했다. 전익수조의 사례는 재래 수리시설을 일제 수리조합시대에도 주요 용수원으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세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특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후 새로운 인프라사업을 유발하고 그것과 결합되면서 급격한 변화의 주체로 전신했다는 점에서 재래적이고 과도기적 속성을 탈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근대적 속성이 강화되면서 전익수조는 지역 농민과 또 주변 농촌과의 연관

관계가 취약해지는 ‘개발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었다.⁵² 이 사례연구는 재래 수리조직에 대한 보다 정치한 실태분석과 함께 근대전환기 한국농업수리사에서 연속성과 미세 변화, 한계조정(marginal adjustment)이 초래하는 변화양상을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⁵²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전북 裡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창간호(2008.10) 참조.

참고 문헌

[1차자료]

- 古阜水利組合設立事務所. 1916. 「組合設立認可願關係」, 井邑: 古阜水利組合.
 東津水利組合. 1935. 「東津水利組合創立10周年記念誌」, 金堤: 東津水利組合.
 東津農地改良組合. 1975. 「東津農地改良組合五十年史」, 金堤: 東津農地改良組合.
 木原壽. 1928. 「益山郡事情」.
 山下春圃. 1927. 「湖南寶庫 裡里案内: 一名益山發展史」.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益沃水利組合. 1923. 「益沃水利組合之事業」, 裡里: 益沃水利組合.
 益山郡. 1932. 「益山郡誌」.
 益山郡.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
 全北農地改良組合. 1978. 「全北農組70年史」, 裡里: 全北農地改良組合.
 全益水利組合. 1909-1941.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裡里: 全益水利組合.
 朝鮮總督府. 193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內務局編. 各年刊.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編. 1927-41.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忠淸北道. 1909. 「韓國忠淸北道一般」.

[2차문헌]

- 高在昱. 1986. “萬頃江水系の 蛇行特性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궁봉. 1990. 「하천유역일대 간석지상의 간척취락 유형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유역을 사례 지역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馬場昭. 1965. 「水利事業の展開と地主制」. 御茶の水書房.
 박명규. 1989. “일제하 수리조합의 설치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에 관한 연구—전북지방을 중심으로—.” 「省谷論叢」 20: 171-208.
 徐承甲. 1991. “日帝下 水利組合 구역내 增收糧의 分配와 農民運動—臨盆·益沃水利組合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41.
 西條晃. 1971. “1920年代朝鮮における水利組合反對運動.” 「朝鮮史研究會論文集」 8.
 蘇淳烈. 1994.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國譯: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松本武祝. 1991.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松本武祝. 2003. “植民地朝鮮における農業用水開發と水利秩序の改編-萬頃江流域を對象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41集(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第7章 所收: 263-302).
 松本武祝. 2008. “韓國における農業水利組織の改編過程.” 「歴史と經濟」 199: 13-22.
 우대형. 2005. “일제하 만경강유역 수리조합연구.” 「東方學誌」 131: 139-179.
 유제현. 1994. 「한국근대화와 역사지리학: 호남평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경란. 1991. “日帝下 水利組合과 植民地地主制—沃溝·益山지역의 사례—.” 『學林』 12·13: 111-163.
- 이영훈·장시원·宮嶋博史·松本武祝. 1992.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 일조각.
- 李愛淑. 1985. “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立과 運營.” 『韓國史研究』 50·51: 319-362.
- 田剛秀. 1984. “日帝下 水利組合事業이 地主制展開에 미친 影響—産米増殖計劃期(1920-1934년)를 中心으로—.” 『經濟史學』 8: 109-193.
- 정승진. 1997. “일제하 수리조합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연구: 충남 서천수리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經濟史學』 22: 121-160.
- 정승진. 2000. “20세기 전반 대규모 수리조합사업의 전개: 전남 영광수리조합의 사례분석.” 『大東文化研究』 36: 141-188.
- 정승진. 2003. “1930년대 羅州 榮山江 유역의 농업변동.” 『大東文化研究』 44: 41-81.
- 정승진. 2004. “식민지주주의 동향(1914-1945): 전북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의 분석.” 『한국경제연구』 12: 139-176.
- 정승진·마쓰모토 다케노리. 2005. “영주에서 식민지대지주로: 일본 귀족 호소가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 『역사비평』 73: 241-270.
- 정승진·松本武祝. 2006.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전북 『익산군춘포면토지대장』의 분석.” 『한국경제연구』 17: 41-77.
- 조성욱. 2007. “만경강의 역할과 의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87-200.
- 최원규. 1992.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 39: 211-263.
- 崔泰鎭. 1966. “1920年代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産米増殖計劃の掠奪的本質.” 『朝鮮學術通報』 3-1.
- 河合和男. 1986.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未來社.
- 홍성찬·최원규·이준식·우대형·이경란. 2006.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 Wade, Robert. 1982. *Irrigation and Agricultural Politics in Sou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원고 접수일: 2008년 9월 11일 원고 심사일: 2008년 9월 19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월 2일
--